

주제 :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는 시기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임인, 우리 교회공동체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한 해는 세상의 달력에서 볼 수 있는 시작과는 다릅니다. 2009년도 달력은 아직 한 장을 남기고 있고, 연말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자세를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은 그 대림시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대 앞에도 가장 짙은 색의 초에 불을 붙여놓고, 점차로 밝은 색으로 붙어나갈 것입니다. 흰색의 초에 불이 켜질 때쯤이면,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 하고 갈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기다리는 예수님과 작년 이맘때쯤, 대림시기에 기다렸던 예수님이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이라면 얼마나 다른 분이었는지,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해마다 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게 준비하는지 그 대답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대답이란, 그 말을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대답보다는 우리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까지 어떤 대답을 할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지금은 어떤 대답을 할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맞아들이는 일은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그리고 황당하게 맞이할 거라는 말씀은 듣기에 속 편한 소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그

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엄청난 능력이 발휘될 때 세상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하느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느님과 더불어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올바르게 좋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세상은 하느님과 멀어지는 법이고, 우리는 악한 힘들에 둘러싸여 세상에서 헤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이 하느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의 사정과 편리를 생각하고 주장할 때에 그리고 행동할 때에 사람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국에는 인간들 스스로가 서있던 삶의 바탕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야 말로 우리가 사람의 권리를 앞세우며 하느님을 가장 멀리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다지 감흥 없이 그 말씀을 대합니다. ‘설마, 내가 살고 있는 때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의 위협(?)이 현실로 드러나겠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미래는 정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현실의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이사야 예언자는 2800년 전부터 외쳤지만, 이러한 이사야 예언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소리에도 별로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귀찮은 소

리를 또 한 번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현실들이 우리의 미래를 차곡차곡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무나 하지는 않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를 어려워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는 행동보다는 만취와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삶은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을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이 새로운 때가 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라서가 아니라, 그에 맞춰 우리가 새로운 마음자세를 갖고, 하느님께로 우리의 머리를 돌리는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는 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의 힘도 청해야 할 일입니다.

위령 성월 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최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최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함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대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음악회 녹음 CD 배포 안내

이번 11월 음악회 공연 실황 녹음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배포).

◎ 대림절 판공성사 안내

12월 13일(대림 3주일)-고원일 안드레아 신부님

12월 20일(대림 4주일)-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공히, 미사 30분 전과 미사 후에 있습니다.

◎ 2009년 연말 활동 율뜨레야 안내

▶일시: 2009년 12월 4일(금) 6:00~11:00pm

▶장소: 예수성심천주교회 친교실

▶문의: 율뜨레야 간사.

◎ 사제직을 위한 기도의 날 행사 안내

▶일시: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7:30 ~ 오후 7시

▶장소: St. Aloysius Parish

11 Traynor Avenue, Kitchener

▶문의: 사목총무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식사는 성모회에서 스낵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주에 워털루 4구역이 식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육관/소성당 사용시 반드시 본당 주차장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형제께 말씀해 주십시오. ☎519 279 4005 교환 1번

◎ 12월 안내 담당은 사목회의입니다.

◎ 각 구역장은 교우주소록양식 정정/추가하여 사목 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말한다. ‘대림’이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다. 이 용어는 ‘도착’을 뜻하는 라틴말 ‘아드벤투스’(Adventus)를 번역한 것이다. 오실 분은 물론 예수님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시다. 그런데도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그분의 탄생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새롭게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한 해의 ‘전례 주기’는 대림 첫 주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교회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올해 대림 시기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렸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편 대림 시기는 종말에 오실 예수님도 묵상하게 한다. 이 분위기는 대림 첫 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전례에 많이 나타난다. 성경 말씀도 ‘깨어 기다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가 12월 17일부터 성탄 전야인 12월 24일까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렇듯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두 부분으로 묵상하게 한다.

대림 시기에는 사순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영광송’은 노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렐루야’는 노래한다. 사순 시기는 회개가 강조되는 시기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뜻에서 노래를 생략한다. 하지만 대림 시기는 기다림과 희망의 시기다. 인류 구원의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알렐루야를 노래한다.

2009년 11월 22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51.25
교 무 금 : \$ 5.00 240(5)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252.00 184(20) 188(20) 194(20) 203(5) 205(20) 214(10) 219(5) 224(50) 226(100) 240(2)
성모님동산 (누계):금주\$5 (\$5285.00)
합 계 : \$ 1108.25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009-48호

2009. 11. 29.

대림 제 1 주일

해설 신계연

차주 해설 박명옥

성 가

입 당 (88) 임하소서 구세주여

봉 헌 (218) 주여 당신의 종이 여기

성 체 (166) 생명의 양식

퇴 장 (91) 구세주 빨리오사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독 서

11월 29일 김현태 김진선

12월 6일 신상우 신계연

봉 헌

11월 29일 고영호 고기숙

12월 6일 김현태 김진선

복 사

11월 29일 최예슬 강수현

12월 6일 구하람 김근영

친 교

11월 29일 성모회 (스낵)

12월 6일 성모회와 워털루 4구역